

증심사상가번영회로부터 감사패



박광태 광주시장은 26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접견실에서 무등산 증심사지구상가번영회(회장 이기주)로부터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완공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5·18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적극 지원”

유네스코 총회 데이비드슨 험번 의장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네스코가 공동주최하는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참석차 방한한 데이비드슨 험번(Davidson L. Hepburn·사진 왼쪽) 유네스코 총회 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방문하고, 이병훈 단장을 예방했다.

데이비드슨 유네스코 총회 의장과 이병훈 단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추진단과 유네스코 협력사업 및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데이비드슨 총회 의장은 이 자리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아시아 국가간 다양한 문화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적 가치를 발견하고 다양한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및 세계 평화 증진과 깊은 관련이 있다”며 “전당 개관을 전후해 유네스코와 추진단 간 협력사업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데이비드슨 총회 의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성지였다는 관점에서 표명하며, 특히 이병훈 단장이 요청한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기수 현숙, 장흥에 이동목욕차량 기증

기수 현숙씨가 장흥군에 이동목욕차량을 기증해 화제다. 장흥군에 따르면 26일 오전 군청 앞 광장에서 현숙씨는 4500만 원 상당의 이동목욕차량을 군수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 <사진>

장흥군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난 2006년부터 저소득층 거동불편 재가노인 및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 2회 이동목욕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차량노후로 인한 찾은 고장으로 사업주진에 많은 어려움이 겪어 왔다.

이 소식을 들은 현숙씨의 이동목욕차량 기증 결정으로 더 많은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및 장애청소년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게 됐다.

한편 이번 현숙씨의 이동목욕차량 전달 및 봉사장면은 오는 29일 오후 6시 KBS ‘사랑의 리퀘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충북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신현직·김지영씨 장남 성철군 조정래(광주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 회장)·이현주씨 장녀 어려양=피로연 28일(금) 오후 6시 무등파크호텔 4층, 결혼식 6월12일(토) 오후 6시30분 서울 논현동 빌라드빌리일.

▲김 원(광주보훈병원 진료부장)·윤해경씨 장남 지하군 김병식·이돌심씨 장녀 진희양=29일(토) 광주무등파크호텔 4층(다이아몬드홀)

▲서석철·조정업씨 차남 동욱군 박제범·이순금씨 차녀 주화양=30일(일) 경복궁웨딩컨벤션 1층(경복궁홀)

▲김종배·조정업씨 차남 동욱군 강성수(해성건설 회장)·임채현씨 차녀 주희양=30일(일) 낮 12시30분 호텔무등파크 4층(컨벤션홀)

동창·동문회

▲손불초등학교 39기(회장 임준호) 동창회=27일(목) 오후 7시 증심사 중미리재식당. 017-601-5866(총무부종성)

▲조대부중 23기(야)=27일(목) 오후 7시 증심사 중미리재식당 062-225-8252(구성재)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법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 번역 통역원=각종 서류, 무역·이민 비자 해외유학서류, 각종 면허증, 특허증, 논문초록 등 전문 번역실 운영. 062-431-4788.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

▲성폭력(의료, 법률, 상담지원), 청소년성상담 및 성교육 등. 062-673-1366, 062-671-4050.

▲사회복지법인 수원실비벌 노인 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자. 기초생활수급자·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등. 062-959-2340.

▲성모사랑 노인 방문요양 센터 국비지원 가정방문 노인도우미 이용자모집=훈자선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 집에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 제공. 062-385-3678.

▲우리문화 시랑회 회원 모집=전통문화를 애호하는 20세 이상 일반시민. 매월 24일 월례회 및 문화답사, 학술발표회 등 예정. 016-686-6491.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 모집=문화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경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디딤돌 장애인아학 교사·학생 모집=초·중·고 졸업을 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오치4거리에서 도보로 3분. 010-

전남대 도서관에 전국 최초 북카페 ‘서지향’ 연 이정애 도서관장

“향긋한 커피에 인문학의 향기 담아 드려요”

잔잔한 노랫소리와 함께 커피향이 코 끝을 휘감는다. 도란도란 둘러앉은 탁자에서 나지막한 소리로 톤론도 이어진다. 약간의 소음은 집중하기 더욱 좋다. 가만히 둘러보니 카페는 아니다. 탁자 주위에 나열된 수백여권의 책이 풋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카페(book cafe)라고 하기엔 책의 수가 많다. 이곳은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안에 만들어진 작은 도서관 ‘서지향(書之香)’으로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다.

인문과학서적 위주 대여

이정애(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전남대 도서관장은 “도서관 도서 대여 목록을 보니 대부분이 소설 위주였다. 선진국에 비해 독서량이 절반 밖에 되지 않는데 그 종류도 소설에 한정되는 등 ‘편식’을 하고 있었다”며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인문과학서적 위주 책을 누구든 쉽게 끄내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도서관장으로 부임한 이 관장은

도서관이 시험공부를 하는 곳이나 책을 빌려주기만 하는 공간이 아닌 이용자들에게 휴식과 지식을 풍부하게 제공해주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는 북카페의 형식을 릴리피 소설 위주의 책이 아닌 인문과학서적 800여권을 기증받았다. 이기웅 괴주 출판도시 이사장이 200여권, 도서출판 열화당이 300여권, 최진수 전대 의대 교수가 200여권 등 출신 동문 뿐 아닌 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기증받을 수 있었다.

‘서지향’은 전남대 중앙도서관 1층에 위치해 있다. 기존엔 휴게실로 사용되던 공간(38㎡) 일부를 커피 전문점에게 임대를 해주되 나머지 공간은 책과 탁자, 컴퓨터를 설치했다. 겨울을 제외하고는 테라스 공간(58㎡)까지 사용 가능해 모두 90여명이 앉을 수 있다. 이곳은 전남대 학생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닌 타대학 학생이나 시민 등 모두 이용 가능하다.

“서지향”에서 커피 등을 구입하면 1% 금액을 모아 책 구입 비용에 사용할 수 있게 업자와 계약했습니다. 학생들이 사먹은 돈이 학생들에

게 쓰이는 셈이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읽은 책의 감상 등을 적어 게시판에 남기거나 도서관 홈페이지에 쓰면 무료쿠폰 등을 나눠주는 등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설 1주년엔 저자 초청 낭독회

뿐만 아니라 ‘서지향’ 개설 1주년에는 저자를 초청해 낭독회를 열 계획이며 음악콘서트도 할 예정이다. 또 도서전시회와 북콘서트 등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 관장의 이러한 노력에 충남대나 광주대학교에서도 ‘서지향’ 운영을 직접 보기 위해 내려오기도 했다.

이 관장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다. 인문학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느껴지지만 이 관장의 지론은 확실하다. 학생들은 인문학적 소양을 꼭 갖춰야 하며 그 중심에 책이 있다는 것. 이는 의대 학생들에게도 강조한다.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강희락 청장·이무영 전 청장 등 조문 발길 이어져

이송범 광주경찰청장 빈소 표정

지난 25일 갑작스럽게 사망한 이송범(56) 광주지방경찰청장의 빈소가 마련된 조선대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26일 고인의 빈소에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동료 선배 경찰관과 각계 인사, 지인들의 조문 행렬이 계속됐다.

이날 강희락 경찰청장을 비롯한 이무영 전 경찰청장, 이대길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정봉재 전 전남지방경찰청장, 최병민 전 광주지방경찰청장, 한진희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조용현 울산지방경찰청장, 남현수 전 강원지방경찰청장, 이나연·김동철·조영택·강기정 국회의원,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 등 2500여명이 빈소를 찾아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다. 정부는 정창섭 차관을 통해 고인에게 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맹원규 행정안전부 장관, 한나라당 정동준 대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은 조회를 보내왔다.

조문객들은 갑작스런 고인의 비보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고인의 삼촌 이계학(77·장성군 삼면서면)씨는 “일주일에 한 번 꽃과 고향을 찾아 어머니를 뵙고 갈 만큼 효성이 지극했는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포스코 패밀리 포스위드 양오현씨 산업 포장

포스코 패밀리사 (주)포스위드(사장 박준석) 근로자 대표 양오현(55)씨가 지난 25일 근로자의 날 맞아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양 대표는 장애인 사업장 특성에 맞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사간 신뢰구축은 물론, 장애인 근로자들이 꽤적하고 안정된 사업장에서 일할



26일 조선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송범 광주지방경찰청장의 빈소를 찾은 강희락 경찰청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분향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영결식은 27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경찰청 광장에서 경찰청장으로 엄수되며 시신은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한편, 이 청장은 지난 25일 오전 8시18분에 광주시 서구 금호동 관사 육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원쪽부터 임태희 노동부 장관, 양오현씨 부부.

위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광주 수완 휴먼시아

광주시 광산구 수완아름마을 휴먼시아 3단지 관리사무소(소장 김정순)는 5월 1일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5일 아파트 단지에서 ‘제1회 어린이 그림그리기 및 가족 써주기 행사’를 가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최 행사에는 광주지역 최초인 이날 어린이 그림그리기 행사에는 단지 내 어린이 대부분이 참여했으며, 가족이 없는 세대들은 가족을 받아가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곽지균 영화감독 숨져

영화 ‘젊은 날의 초상’ ‘걸어서 하늘 까지’ ‘겨울 나그네’ 등을 만들며 1980~90년대를 풍미한 곽지균(본명 곽정근) 감독이 지난 25일 대전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56세. 영화계에 따르면 그 감독의 형은 동생이며 친구로 연락이 되지 않아 이날 동생의 집을 찾았다가 숨진 채 발견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곽 감독은 다단연탄 옆에서 숨진 상태였으며 노트북에 유서를 남겨놓았다.

/연합뉴스

원로화가 전혁림화백 별세

경남 통영을 무대로 활동하던 원로화가 전혁림 화백이 지난 25일 오후 6시50분 통영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지난 1916년 통영에서 태어난 전 화백은 1949년 제1회 국전 입선을 시작으로 제2회 국전에서 문교부장관상, 제4회 국전에서 특선을 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시인 김춘수, 음악가 윤이상 등 통영 출신 예술인과 교분을 나눴다.



마음 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 박천 우 님(남 : 74세)

구구봉 바구봉 / 배수경

박정우 / 김지연

화장장 201호

화장장 202호

화장장 203호

화장장 204호

화장장 205호